

제19회 여수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황리에 끝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려...농업인 등 800여명 참여

“스마트팜 농법 도입·유통구조 혁신통해 부가가치 창출”

여수시는 지난 11일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여수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농업인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 혁신 여수농업'이라는 주제로, (사)한국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여수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여수시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우수농업인에 대한 표창과 각

사과 전달에 이어 농업인 결의문 채택, 우리쌀 나눔행사,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지은 농산물과 천연염색 제품, 우리음식 작품 등을 전시하고, 농업인대학 학습동아리(행복초반)의 성과물 등 우수농산물 홍보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쌀 나눔행사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에서 마련한 600kg의 쌀을 문수종합사회복지관과 진달래마을노인요양원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박현식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9월 직원들과 함께 ‘LA한인축제’에 참가해 21만 불(약 3억 원) 상당의 우리 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왔다. 여수 농특산물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고,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스마트팜 농법 도입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이 주목받는 환경을 조성해가겠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시,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광양시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단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41건 중에서 11

건(광역 3, 기초 8)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주제는 '아이 행복, 부모 신뢰, 교사 만족을 이루는 안심보육'으로, 전국 시군구 최초 시행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김현근 기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순천시는 최근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은 옛 순천부 읍성

이 있던 곳으로 지상 1층, 지하 3층의 광장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순천시 문화예술과 신순옥 과장은 "우수상 상금 1백만 원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한마음 한뜻의 염원을 담아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기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조성사업 순항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성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조성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14일 개최됐다.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조성사업'은 갯벌 등 해양자원의 보전과 중요성을 체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해양갯벌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472억 원을 투입해 벌교에서 장도를 잇는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해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생태탐방로 조성, 방문자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본 사업과 전라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병행 추진하여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2 고흥 유자석류 축제' 성대하게 마무리

한건의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성공축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고흥군은 지난 13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석류축제장에서 「2022 고흥 유자석류 축제」가 4일 동안의 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첫째 날, 1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내내 주무대, 체험·판매부스, 먹거리 부스는 물론 유자 돌레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예년의 축제와 달리 체험

부스를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관내 체험 프로그램 업체만으로 구성하여 유자·석류청 담그기, 유자피자, 오란다, 마카롱, 유자향기 체험 등으로 유자와 석류제품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관람객들에게 노란 유자 발 돌레길에서 힐링하고 담으로 체험부스 체험 기회를 주는 대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공연 구성에 있어서도 유자와 석류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공연으로 송가인 라이브커머스와 미니콘서트를 진행해 유자생과와 석류 가공품 판매로 당일 방송 접속자 수가 9만 5천 여 명을 상회함으로써 관측 행사를 통해 고흥 농수산물 소평몰과 관련제품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등 새로운 시도는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 또한 좋았다는 평이다.

2일 차에 걸쳐 진행된 '300대 드론 아트쇼'는 고흥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의 이미지를 탄탄하게 구성해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을 연출하고, 축제장 입구에 아치형 터널 조명과 생명의 나무 등 꽃과 빛으로 구성된 조형물들은 '고흥관광 1천만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을 제시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공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